경기도 '도시재생' 내달 본격화

고양·남양주 등 시범사업 '6곳'

국비 910억 포함 2177억 지원받아

주택·골목길·상권 회복 등 진행

경기도내 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가운데 6개소에서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6개소를 포함한 51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결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원당), 고양(화전), 안양(명학), 안양(박달), 남양주(금곡), 광명(광명5), 시흥(정왕), 수원(매산) 등 8개소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지원이 결정된 6개소는 고양(원당), 고양(화전), 안양(명학), 안양(박달), 남양주(금곡), 광명(광명5) 등이다.

국비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들 6개소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원, 도비 182억원, 시비 493억원,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원 등 총 2177억원이 단계별로 지원된다.

도는 경기도의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 후 9월부터 도비 29억원을 포함한 240억원을 우선 투입해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6개 지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노후주거지정비.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고양 원당, 안양 박달) ▲골목길정비 등 주거지역 전반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안양 명학, 광명 광명5),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공동체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반근린형'(고양 화전), ▲중심상권 회복과 문화.예술.역사자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중심시가지형'(남양주 금곡)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양 박달지역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명5지역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존을 마련하고, 원주민 이주.순환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등 원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남양주 금곡은 역사문화거리 조성,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경춘선 폐역사와 철로 등 방치된 시설과 세계문화유산 홍유릉 등 지역 역사자원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뉴딜사업에 담았다.

한편, 국토부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행하지 못해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 매산과 시흥 정왕은 10월까지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연말까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28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아침햇살 가득 품은 담양메타세콰이어랜드 5일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어랜드가 아침 햇살을 가득 안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은 마치 시원한 숲 속 동굴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메타세쿼이어길은 걷노라면 나무에서 품어져 나오는 특유의 짙은 향과 피톤치드의 상쾌한 향기를 맡으며 느긋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5·18 당시 전남도청 복원 적극 지원"

이용섭 광주시장, 대책委 등과 면담

담당자 파견·전시물 철거 등 제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청에서 이철우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성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등은 "1년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항쟁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5월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광주시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복원 실무 관련 광주시 담당자 파견, 건물 내 전시물 철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시장으로서 중앙부처를 설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시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이면 5·18이 40주년을 맞는다"며 "내년 39주년 기념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5·18로, 2020년 40주년은 세계적인 5·18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지난 3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옛 도청 복원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 中企 인증·지원 추진

인천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인증·지원함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2018년 상반기까지 82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올해는 상반기 13개 기업을 포함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성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료 '가정용' 적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성남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성남시내 2~3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t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275가구다.

/경기 성남=김승열 기자

성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이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어든다. /성남시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안보 고취' 교류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4박 5일간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를 마쳤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와 전라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57명이 참석한 '경기도 전라남도 청소년 교류'는 2016년 양 도가 맺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 양 도의 역사탐방 및 문화체험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남북 평화협력의 분위기와 청소년들의 통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임진각평화공원 일대의 제3땅굴, 도라산평화공원, 도라산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을 방문했다.

캠프에 참가한 김지현(경기도차세대위원회) 학생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골든벨' 행사 개최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청소년의 조기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는 8월 8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금연골든벨을 울려라 및 금연 절주체험관 행사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연골든벨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다양한 게임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마술공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연상식과 흡연의 폐해를 인지시키는 교육이다.

아울러 흡연으로 망가진 폐와 정상 폐의 모형 비교 전시, 실제 담배 속 니코틴 및 타르의 관찰, 흡연 및 음주의 폐해 관찰, 가상 고글체험과 폐활량 측정 등의 내용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경기 연천=김승열 기자